

나주시,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시행...도비 제외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권한 이양

나주시가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 적용한다.

나주시는 지난 10일자로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보조사업의 계약원가심사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해당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과 다양한 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 권한이 나주시로 이양

돼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시정(분정),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행정 절차상 혼란 방지와 하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사 대상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원활한 심사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에 맞춘 직무교육, 계약사례 직원 간 공유를 비롯해 정렬한 원가심사 실적을 다짐하는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발전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폭넓고 다양해진만큼 현장 위주의 적정하고 타당한 심사를 통해 지자체와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군 '여순사건 명예 회복' 사실 조사

연말까지 신청 접수

화순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화순군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가족과 보종인 등 321명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신청 마감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지만 군은 지난 7일부터 현장 방문과 전문적인 면담 조사 등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가 끝나면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소위원회 거쳐 희생자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23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세계 각국의 클래식을 만날 수 있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이 23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누림이 주최, 전라남도과 담양군, (재)전남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첫 공연이다.

지역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클래식 곡들을 연주한다.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푸치니, 베르디 등 대중적이고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을 지역별로 구

성해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연출됐다.

지휘자 한상욱의 지휘와 호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플루티스트 박희원, 소프라노 정다운, 테너 유신희 등이 멋진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담양문화회관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여름방학 '건강노리요리교실' 성황

간식·클레이아트 만들기·K팝 댄스 등 어린이 호응

함평군의 '어린이 건강노리요리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건강증진형 월아보견지소에서 나산·해보·월야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노리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양 간식 만들기, 음악줄넘기, K-Pop 방송 댄스(사진), 클레이아트 만들기 등 영양교육과 신체활동이 중심이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

여 어린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은 특히 올바른 식품 선택하기 등 영양교육과 조리 실습에 즐겁게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덕분에 이제 혼자서도 자신있게 영양간식을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성장기 건강 습관이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된다"며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생활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하멜촌 맥주 마시고 피로 '푸소'

31일부터 사흘간 하맥축제-푸소체험 연계 숙박 프로그램 행사장~숙소 픽업·시골밥상 제공...21일부터 선착순 예약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열릴 제1회 강진 하맥축제 기간 푸소체험과 연계한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하맥축제 참여자가 푸소체험을 사전 예약하면 2인 4만원, 3인 10만원, 4인부터는 1인당 3만원 가격으로 푸소 농가 숙박과 견강한 아침 시골밥상을 맞출 수 있다.

푸소 운영농가에서 행사장과 숙소까지 픽업 서

비스도 제공한다.

푸소 체험은 강진군 전역에 있는 푸소 운영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농촌의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체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이다.

21일부터 전화로 예약받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예약을 희망하면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061-430-3327·3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하맥축제는 오직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멜촌 맥주'와 지역의 존담으로 만든 치킨이 어우러진 치맥축제다.

하멜촌 맥주는 '하멜표류기'의 주인공 하멜이 강진에서 7년간 머물렀던 지역의 문화역사에서 착안한 새로운 대표 상품이다.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의 맥아를 가져와 만들었고, 물을 희석하지 않아 깊은 맛을 낸다.

축제장에서는 생맥주 한 잔을 2500원에 제공하며, 맥주존에서는 1만원의 입장료를 내면 밤 9시까지 무제한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성군 건물번호판 바꾸니...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11곳 건물 특색 반영 '자율형' 설치

장성군이 11개 마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자율형'으로 새롭게 설치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주변 환경과 건물 외관을 고려해 번호판 재질, 크기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번호판이다.

장성군은 장성을 미락단지, 황룡행복마을 등 11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총 684개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별 대표장소에는 엘이디(LED)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했다.

낯은 번호판을 교체해 주소 확인이 한결 수월해진 것은 물론, 미관 개선 효과도 뛰어나다.

주민 박모 씨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다"며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전남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우수설치 분야에서 2관왕을 수상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설치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한옥마을인 '황룡행복마을'의 특성을 반영했다. <장성군 제공>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